

에베소서6:1-4 젊은 부부가 자식을 돌보지 않아 죽인 사건이 CNN International News에 나온 적 있습니다. 부끄럽게 한국인이었습니다. 부모가 친 자식은 버려두고, 인터넷의 사이버 자식만 보살폈답니다. 친자식은 먹을 것 마실 것 안 줘도, 사이버 자식은 지극 정성 보살피다, 친 자식이 죽은 사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국 사회를 향해, ‘부모들이 애완동물 기르고 꽃 가꾸듯, 자녀를 양육만 해도 세상은 아주 달라질 것이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생선장수 어머니’란 글입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엄마가 너무 창피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르면, 숟가락을 팽개치고 투정부렸다. 학용품 사라고 쥐어준 돈도 생선 냄새 난다며 뿌리쳤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 일하는 아름다움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 얼굴들 사이에서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지만, 이제 어머니는 내 곁에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가깝고 가장 친밀해야 할 그 관계가, 멀고도 차가운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똑같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엡6:1-4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

아주 똑똑하고 잘난 아들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담에 커서 뭐가 될까?" "대통령!" 아빠가 신이 나서 또 묻습니다. "우리 아들 대통령되면, 아빠는 뭐 시켜줄까?" 꼬마가 뚨를 들이더니, "짜장면!" 아빠는 화가 나서, "짜장면 너나 먹어라!" 실은 작은 것에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게 가족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효자 효녀라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일 뿐 아니라, 그 명령 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어릴 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눅2:51 "예수께서 함께 내려 가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예수님은 효자로 사셨다. 육신의 어버이께 효도하셨다."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시고, 곁에 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네 어머니다!"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효도로 마무리 하십니다. 십자가가 됩니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자리 아납니까? 우리 모든 죄와 허물 대신 지신 자리 아납니까? 예수님이 지신 허물 가운데는 불효의 허물도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자식 가운데, '효도만큼은 자신 있다. 효도를 다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효도만큼은 자신 못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도, 자식은 그만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불효의 죄책까지 대신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효자 예수님께 효도하는 능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내 어버이를 통해 생명 주셨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효도입니다. 내 부모가 돈 많이 못 벌고, 많이 못 배우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선장수

엄마 부끄러하듯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니까 부모 세대는 인터넷도, 영어도 게다가 스마트폰도 잘 쓸 줄 모릅니다. 못나 보일 겁니다. 또 나이 많은 부모님은 실수까지 잦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실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참아 주셨고, 아버지는 실수를 바로 잡아 지금 내가 있습니다. 이제는 늙은 부모님 실수를 내가 참고 기다려 드릴 때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할 때, 어머니는 날 안아 키우셨습니다. 이제 늙은 어머니를 내가 안아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 당신 손으로 드시기 어려울 때, 내 손으로 넣어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대소변 못 가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때, 어머니는 더럽다 한번 얹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제게 효도할 기회를 주셨군요. 날 효자 삼으시는군요." 그러고 감당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로 하는 수백 번 교훈보다,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효자는 효자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이 땅 부모에게 최고 영광이 뭔지 압니까? 자식들 공경과 사랑 받으며, 늙어가는 겁니다.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에게 공경도 사랑도 못 받고 사는 겁니다. 왕상 2:19 솔로몬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기 옥좌 오른편에 앉힙니다." 이방 헛 족속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고, 남편을 죽게만든 사람과 다시 결혼한 몇몇치 못한 어머니 밋세바입니다. 신하들과 귀족들에게 얼마든 무시당할 수 있지만,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그리 공경하니, 누가 감히 무시합니까?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엔 못합니다. 십계명에 아홉은

평생 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관련된 다섯번째 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납니다. 나머지 아홉은 언제나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지킬래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멀리 미국에서지만 전화라도 자주 드려 안부를 여쭙고, 뵈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한 차원 더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 드려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생전에 아무리 잘 모신들, 영혼을 구원받게 못하면 효도를 다한 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도 아버님이 먼저 예수 믿으셨는데, 막내 아들이 전도하니까, "내 새끼 막둥이 가는 데면, 나도 가야하제." 그러고 믿으셨습니다. 물론 교회 간담시고 부모님 거들떠 보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공경해도, 생전에 예수 믿게 해 드리는 게 최상의 효도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전에 진수성찬에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즐거운들, 구원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찌 효자입니까?

오늘 가족 예배 드리는데, 서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원한 천국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해, 단 한 끼라도 제가 금식합니다. 한 주간 어머니를 위해 즐거운 일 없겠습니다. 부모님께, 자녀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을 선물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이나 니카라과 같은 오지에 가 살면서,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장원전 정연호 선교사님도 있는데, 나는 내 가정, 내 가족에게라도 구원의 복음 전해야지 않습니까? 주께 매달려 부모님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효자는 특별한 상을 받습니다. 출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엡6:2-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중 유일하게 약속이 딸린 계명입니다. 형통과 장수의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모두 형통하고 장수했습니다. 셈과 야벳, 이삭과 요셉, 다윗과 솔로몬, 형통하고 장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도 효자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장수는 하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효자요, 부모님께 효자요, 효자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새 시대 새 윤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을 세우고 거기 부모와 자녀를 두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새 시대를 연 예수님은 옛 질서를 완성하기 원합니다. 새 질서 아래 재창조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들이 생깁니다. 여전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담 아름답던 가정도, 부모 자녀 관계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관계가 뒤틀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이 그러니, 사회도 따라 타락했습니다.

사랑은 탐욕으로 권위는 권위주의로 변질돼, 억압적인 관계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안에서' 예수님은 가정과 사회를 새로 지으십니다. 주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자기중심적 파괴 대신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달라집니다. 마지못해 구시렁대면서 하지 않고 기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빠께 순종한 것처럼, 주안에서 순종합니다.

자녀의 순종에 짝이 된, 부모를 향한 명령이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선생같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의 아버지상과 너무 다릅니다. 로마 아버지는 모든 가족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매를 때릴 뿐 아니라 갓난 자녀를 내다 버릴 권한도, 자녀를 노예로 팔 권한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녀를 노엽게 말란 건 자녀에게 권위를 남용치 말란 말입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대하고, 일관성 없이 대하고, 자녀가 미숙하고 경험 부족하다고 몰아붙여 모욕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회에 적개심 품는 수많은 작은 악마는, 실은 잔인한 부모가 길러냅니다.

집에서 만큼은 내가 자격 갖춘 만큼 대우받는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 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수용, 격려와 격에 맞는 칭찬만큼 자녀 성품을 꽃 피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부모에게 맡긴 작은 우주입니다. 부모 꿈을 대신 이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비전에 따라 자녀 고유의 꿈을 이뤄야합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 속한 가정마다 그런 순종과 양육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